

우도마을신문 2023년 여름호

발행 우도마을신문 | 창간 2017년 12월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하우목길 9-1

달그리안



사진 이승희 마을기자

땅콩
파종하던 날

이승희 마을기자

뿌우웅 뿌우웅

안개 고동 소리가 온 섬에 울려 퍼지는 이른 아침,
안개비가 촉촉이 내려앉아 포슬포슬해진 검은 땅에
땅콩을 파종한다.
고랑과 고랑 사이에 몸을 숙이고 일렬로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 둘 셋 넷! 콧 콧 콧 콧!
땅콩씨앗을 파종하는 인부들 손놀림이 바쁘게
리듬을 탄다.

보리수확을 마친 밭은 벌써 갈아놓았는데,
연이은 비 날씨에 밭만 동동거리게 하더니
오늘은 안개 낀 날이나마 허락해준 하늘이 초보
농부는 감사할 따름이다.
가을이면 수확할 땅콩을 기대하며
수고한 친구와 기우는 술잔에 행복이 찰랑
거린다.

그땐 경허명 살아수다

영일동 세 친구 연평국민학교 교문 앞에서



1979년/사진 제공, 글 우승정(영일동, 우도초중 42~27졸업)

1979년 연평초등학교 재학생은 대략 600명이 조금 넘었던 것 같다. 각 학년은 2개 반으로 이뤄졌고, 1개 반에는 50~60명 학생들이 공부했다. 25명이 넘으면 과밀 학급이라고 하는, 요즘과 비교하면 초과밀 교실에서 공부했다. 그 당시에는 수도시설이 없어서 학교 지붕에 물받이를 설치하여 시멘트로 만든 물통(저수시설)에 빗물을 모아 먼지를 가라앉힌 후에 '먹는 물'로 사용했다.

1~3학년은 오전 수업만 있었고, 4~6학년은 오후까지 했다. 점심 급식이 없었던 시절이라서 도시락을 싸 왔는데 대부분 도시락은 콩보리밥에 감치 반찬이었다. 어머니는 1년에 두 번 소풍 갈 때 가장 좋은 반찬이었던 계란 반찬을 싸 주셨는데, 반찬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우영밭에서 자라던 새우리(부추)를 잘게 썰어 계란에 섞어 부침개를 해주셨다. 가끔 전날 제사를 지낸 친구들은 학교에 올 때 고급 빵(가장 인기 있었던 보름달 빵) 한두 개, 도시락 한 귀퉁이에 곤밥(원쌀밥) 한 숟가

락, 저렴고기적(예전에 우도에서 잡히던 물고기로 제사 때 소금을 많이 해서 제수용 젓갈을 만들어 제사상에 올렸음) 한두 점 넣은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그 친구는 그날의 스타였다.

점심시간에는 6학년이 주축이 되어 4,5학년 학생들을 모아 동네 대항 축구 시합을 했는데 요즘 EPL(영국 프로 축구) 경기만큼이나 열기가 뜨거웠고 경쟁이 치열했다. 시합에 나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운동장에서 자기 동네를 열심히 응원했다.

물이 귀해 제대로 씻지도 못하던 시절이었지만 어머니들은 발일, 바당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헌 옷, 헌 신발이라도 깨끗이 빨아 입히려고 수도, 세탁기, 변변한 세제도 없던 시절에 빨랫비누 하나와 마개(방망이)를 들고 마을 구진 물통에서 식구들의 빨래를 하려고 애쓰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 김영진 발행인

우도가치

바당풀(지충)을 잘 캐야 다음에도 톳이 곱다

조일리어촌계(계장 윤두경) 회원 60여명은 지난 5월 20일 비양동 공동 양식장 인근 불레낭알 바닷가에 모여 '갯닻기(갯바위 지충제거)' 작업을 실시하였다.

갯닻기 하는 이유를 물으니 “봄부터 키운 톳을 채취한 다음 돌에 난 지충(바다 풀)을 제거해야만 톳 포자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 내년에도 싱싱한 톳을 기대할 수 있다(김봉석, 비양동)”라고 한다. 메꽃이 활짝 핀 우도의 여름바다. 어촌계원과 해녀들은 바다로 내려가 익숙하게 자리를 잡고 호행이로 톳과 함께 바위에 자란 풀(지충)을 캐기 시작한다. 지충(풀)은 뿌리까지 잘 캐야 이후 톳이 곱게 난다.

조일리 어촌계원들은 바다 물때에 맞춰 5월 초부터 실시한 갯닻기 작업을 한와지 바당에서 마무리했다. 윤두경 어촌계장은 작업에 참여한 60여 명의 계원들에게 이번 5일간의 갯닻기 작업이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었다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5월 우도의 여름, 해녀삼촌들은 밭에선 보리와 쪽파, 마늘 수확에 이어 땅콩 파종으로 연일 바쁘게다가 바다에서는 우미(천초) 캐는 작업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게 보낸다. 그럼에도 바다 여장관리를 위한 '갯닻기' 공동 작업에 빠짐없이 참여한다. 이를 동안 작업 현장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해녀삼촌들에게 바다는 그저 '풍'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 여장을 지속 관리함으로써 내년에도 푸르름을 선물한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강윤희 마을기자

삶의 도서관

야만의 시대를 살아낸 비양동 고태은 어른

짐승같이 일하고 짐승같이 사육당했어



니까? 물건이나 마찬가지로요. 자유란 건 찾아볼 수 없는, 말 그대로 비참한 생활이었고 집에 짐승 키우는 식으로 그냥 짐승같이 일 부리고 짐승같이 사육했어요. 이념 몸이 나라에 맡겨진 몸이니까 짐승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로 맘대로 사육을 했던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런 일 당해 보시오. 바로 야만이에요. 그때 같이 간 사람 중에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람이 한 평생 살다보니 별 악행들을 다 당하고..... 죽지 않으면 살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살아가니까 옛말 고르는 것이지. 일본놈들에게 그렇게 당했어요. 그런 시국을 안 당해 본 사람들은 몰라요. 참말로 비참해요. 비참해. 그렇게 하고 해방이 되니까 얼마나 기뻐했어요. 나 뿐이 아니라 그런 시절이었어요.

해방 직후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해방되기도 모든 것이 다 자유스럽지도 못하고 배우는 것도 배우지도 못 했고, 자유라는 것이 없었던 말입니다.

고태은 어른(95세, 1929년생)은 현재 비양동 최고령어른이다. 어린 시절 일제강점기를 지내온 증언자이다. 늘 아내를 귀하게 여기며 귀 어둡고 다리 불편한 아내를 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어른에게 아내는 어떤 의미일까? 어른은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이렇게 아내에게 지극할까? 궁금해졌다. 그러나 인터뷰하는 내내 고태은 어른이 겪어 온 상상도 못할 아픔과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엄청난 굴곡의 역사를 들으며 놀랍다 못해 함께 시리고 아프다.

개가한 엄마를 찾아 7살에 혼자 우도로 왔다.

한림에서 태어났다. 7살에 학교를 가려고 보니 부모 동의를 필요했다. 개가한 엄마가 우도로 시집갔다는 단서 하나만 가지고 일곱 살 짜리 아이가 물어 물어 혼자 배를 타고 우도로 찾아 왔다. 그때부터 우도에 살게 되었다. 형편이 어려워 학교는 다니지 못했지만 동네 어른에게 야학으로 배워 글을 깨우쳤다.

열 일곱에 뱅뜨르로 잡혀가 노예생활을 했어요.

내가 배운 건 없어도 그런 시국 이런 시국 다 당한 사람이에요.

열일곱 살에 뱅뜨르로 잡혀가 한 1,2년 있었어요. 그 당시 공출이라고 하면서 나라에서 사람을 심어다가 마음대로 일 시켰지요. 사람을 물건이나 마찬가지로 공출이라 불렀어요. 공출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 보고 하는 말이지 어디 사람을 공출이라고 합

요. 편안할 때가 없어요. 지나보니까 이러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몸이 항상 괴롭고 자유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생을 잘 살려면 시국을 잘 만나야 되요.

가정을 유지해서 살아갈 형편이 안됐어요.

나도 가가 막힙니다.

그 당시엔 우리나라 실정도 힘들었고 내가 생활이 아니 뭘직하니까 여자들이 와도 그냥 가 버리고. 처녀 결혼을 세 번을 하고도 모두 도망가 버리고, 처녀한테 세 번 결혼한 사람 나밖에 없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할마니는 네 번 째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 몸에서 내가 토대를 잡았던 말입니다. 어느 남자가 장개를 세 번까지 가고 세 번까지 이혼하고 자식까지 난넌 말입니까? 이 할머니 덕택으로 그래도 자식 놓고 성공했어요. 고맙게 생각하고 이 할머니 만나 아주 행복스럽게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온몸으로 기억하고 있는 고태은 어른.

‘사람이 일생을 잘 살려면 시국을 잘 만나야 된다’는 어른의 말씀처럼 일제 강점기 식민지의 아픔은 보호막이 없던 아이에게는 혹독한 현실이 되었다. 시국을 잘 못 만난 민중이 당해야 했던 끔찍한 고통과 착취를 온몸으로 화살처럼 맞고 억압당하며 비인간적으로 살아 온 세월, 그 세월을 이겨내고 비로소 인간답게 사는 토대가 되어 준 아내는 그에게는 은인일 수 밖에 없다. ‘이 할머니를 만나 아들들도 생기고 성공했다’고 최고의 자랑거리라고 말한다. 오랜 물질생활의 부작용으로 귀가 어두워진 아내는 소통하기가 쉽지 않을텐데 알아듣지 못하는 아내에게 짜증 하나 없이 지극정성이다.

고통의 세월을 보상받듯 두분이 오래오래 행복하기를 바란다.

• 송희정 마을기자



●●● 독자기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에 관하여

• 박수정(상고수동)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와 관련하여 큰 관심을 받지 않았던 1인이었다. 뉴스와 길거리 현수막을 통해 일본이 또 이상한 사고를 쳤구나...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근접한 국가인 중국, 혹은 세계 어디에서건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 않겠나...하고 막연하게 넘겨짚을 뿐이었다. 그 지루한 싸움이 해를 넘기며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되길래 어느 정도 관심이 식은 것도 솔직한 심정이다.

정작 이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함이 피부로 느껴진 것은 역시 생활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에서였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염전의 소금을 도난당했다는 기사를 접했을 때는 농산물을 훔쳐 가는 도둑들이 떠올랐었다. 물론 세상에 그나마 정당하고, 덜 보여 보이는 도둑질이 있겠냐마는 1년 농사를 지은 농민을 우롱하는 농산물 도둑처럼 세상 거지같은 도둑질도 또 없으리라 것이 평소 지론이었는데 소금 도둑 역시 그 연장선인가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오염수 방류 이후 바다의 오염을 염려한 일련의 사태와 관련 있음을 알게 되자 비로소 이 문제가 나의 일상과 심각한 관

련이 있음이 피부로 느껴 집과 동시에 이미 나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당장 소금값이 오르는 것만 문제일까? 웬만한 건어물의 사재기와 품귀현상, 노량진 수산시장의 공포 분위기까지... 또한 이것은 비단 수산물을 좋아하는 개인의 취향이나 수산물을 팔아야 하는 일부 상인들만의 문제가 맞는 것일까? 수산물을 특별히 좋아하지는 않지만 몇 년이고 안 먹고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또한 내 주위에는 수산물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지인이 없지만 내가 사는 이 지역사회가 수산물을 끼리는 공포 분위기에 대단히 취약한 곳이란 점이 큰 걱정이다. 이렇게 작은 지역사회일수록 일부의 경제가 타격을 받아 바로 이어 연관된 사람들의 경제생활까지 곤란해지는 것이 한 눈에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내 옆집 사람이 운영하는 해산물 가게가 어느 순간 문을 닫고, 그 사람이 자주 가던 식당에 점차 손님이 줄어갈 것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하게 그려진다. 우리는 모두 이와 비슷한 위기 상황을 몇 번씩 겪으며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한 가정이 무너지고, 지역사회 전체가 말라 죽어 가는 경험을 이미 해보았기 때문이다.

이 정도만 해도 일의 심각성은 여실히 드러난 것과 다름없으나 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이해 당사자들의 실행력은 과연 그 심각성에 비례하고 있는가를 뒤돌아보아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염수의 방류가 유일한 해답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비용이 가장 저렴한 방법일 뿐이다. 온갖 연구 수치고 미사여구, 과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의 말을 인용하여도 결론은 명확하다. 가장 싼 처리 방법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는 대신 그 피해는 내 나라 국민과 이웃 나라, 나아가 이 바다를 공유할 전 세계가 나누어진다. 이에 지금의 우리는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당장의 비용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며 그것을 지켜 내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재고해야 한다. 더는 지켜보고, 한탄하고, 안타까워하기만 해서는 해결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모두 인정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음이다.

●●● 해녀를 기록하다-14

나 인생살이는 바다, 바다와 나는 단짝이라



- 이름 : 차임화
- 나이 : 89세 (1935년생)
- 태어난 곳 : 추흥동
- 현재 살고 있는 곳 : 추흥동
- 물질 시작 : 32세
- 육지 물질 : 안감

차임화 해녀(89세, 1935년생)는 우도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해녀 사업하는 부모님을 따라 부산에 가서 살다가 서른두 살에 다시 친정으로 와서 물질하기 시작했다. 늦게 시작한 물질이지만 논쟁미가 있고 물질을 취미가 있어 이 년 만에 상군이 되었다.

물질은 안 해 봤어

해업치는 건 어릴 때 배우고 물질은 결혼하고 서른두 살에 친정에 와서 시작했다. 아홉 살에 방학되면 어머니들 물질할 때 따라가 개맞디서 풍당풍당하고 해업치는 걸 배웠지. 딴 사람들은 열여섯 열여덟 나면 육지 나가지만은 나는 학교 졸업하고 밖에 나가서 아버지 심부름하며 살아서 육

지 물질은 안 해 봤어.

우리 영감이 월정 사람인데 부산서 동갑내기 친구가 소개해 스무 세 살에 결혼했어. 외아들이라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부산에서 직장하러니 군대 기피자라고 쉽지 않고 오빠가 나보고 '동생아 자식들은 하나둘 많아가고, 수입도 없고 살기 힘들니 친정에 와서 살아라. 우뭇가사리 조금 뜯어도 돈 아니냐' 오빠가 앞살을 해준거라.

늦게 시작해도 상군이야. 상군한테 배웠거든

풍군한테 배우면 물질 안들어.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서 밖으로도 나가고, 깊은데도 할 수 있지. 가세만 풍당풍당하면 물이 헤울라 해서 깊은데 못 간다니까.

시작할 땐 어려웠지. 그땐 우뭇가사리도 안 나고 미역해서 공동으로 나눠주는데, 그때 나는 할 줄 모른다고 팔찌로 받았어. 그때 막 불만도 있었는데, 계난 약착같이 배워서 그 후에 한 2년 3년 물질을 하니 상군이 돼. 그때 상군이 지금까지 상군이야.

바다와 나는 단짝이라

바다에 가면 나가 선발대로 가는 거라. 어느 여에 가젠 하면 조금만 가면 그 여라. 눈짐작하면 딱 알아지는 거라. 그땐 옆에 사람 다 보일 정도로 물이 맑았거든. 한 번은 밑에서 올라올 때 보난 전복이 이만한 게 하나 있더라고. 나올 때 다시 들어갈 수 없거든. 나와 보난 태왁은 저 끝에 있고, 아이고 저 전복을 두고 나가는 게 너무나 억울하여 그래 저 산 바리고, 가세 바리고, 나가 짐작을 딱 한거라. 다음 조금에 가서 그 전복 터왔겐 허난. '아이고 저 형님은 넘은 조금에 봤던 거 이빈 조금에 해오테가' 경해났어. 눈썰미가 좋아게. 계난 이제도 취미가 바다에 가는 거라. 어디에 가면 성체가 있고 어데 가면 보말 있고 하는 거를 다 알아 지주게. 어떤 사람은 무조건 물아래만 가지만, 나는 이신 테만 숨벼. 헛숨을 배방 안해.

해녀 해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지

해녀 안 했으면 이렇게 못살아. 친정에 가도 손 벌릴 때가 한두 번이고 매번 갱길 때는 친정 부모도 싫어하는 거야. 너 벌어서 살아라 하지 아이고 오냐 오냐 주진 안하거든. 바다는 오면은 와라 너 가져갈 만큼 가져가라 하주게. 해녀 해도 게오르지 안하고, 딴 사람들은 아이고 췌다 물밑 어둑다가 갠해도 난 돌아온 적이 없어. 물에 떨어져 본 날 없고, 돈 많이 벌었지. 집도 사고, 밭도 두 개 사고, 시내 아파트도 사놓고, 큰 성공은 아니지만 물질해서 아이들 다 키우고, 바다가 나를 살려 준거지.

즐겁고 말고

집에서 식구들이랑 언성 높이다가도 바다에 가면 그런 거 다 잊어버려.

바다만 바라보고 사는데 바람이 불고 바다가 세면 화가 나는거라. 못갈까봐.

나 늙어도 금년에 우미물질해서 팔구백 벌었어. 자신 없으면 물질 안하주게. 혈만 허난 물질하는 거. 물으로 나오면 허리 아파서 거동을 못하지만 물에서는 활동할 수 있지. 딴 사람들은 애구 물질하지 많서 해도. 궁해서 하는 거 아니라, 나를 위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운동도 하고 소질이 있고. 마중 해주는 사람 없으면 하고 싶어도 탈퇴해야겠지 만 물질 탈퇴하는 것도 막 아쉬워

차임화 해녀는 아직도 매일 일기를 쓴다. 그녀의 일기장에는 그녀의 인생을 풀어준 바다에 대한 고마움과 바다와 함께 살아낸 자신의 인생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차임화 해녀가 몸이 힘들어져 물질탈퇴하지 않도록 건강한 몸으로 오래도록 바다와 친구하면 좋겠다.

• 송희정 마을기자

●●● 들판을 일구는 사람들

변화된 농업 환경에 맞게 새로운 우도 농업 터전을 일구어 가는 독심 농부 김상훈

소규모 농업이 대세를 이뤘던 우도 농업도 어느덧 세월이 흘러 고령의 농업인들은 일선에서 은퇴했다. 동시에 관광업 활성화로 우도 경제구조도 반농반어에서 여러 업종으로 분화되었다. 따라서 경작하지 않는 농지들이 늘어나면서 농업은 서서히 대규모 기계화 영농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변화의 길목에서 농업회사법인 '우도위탁영농(유)'을 설립하여 새롭게 우도 농업을 설계하는 김상훈 농부의 포부를 들어보았다.



농업회사법인 우도위탁영농 유한회사 설립. 천진길 108

김상훈 농부는 올봄 법인 공간을 마련한 이후로 부부가 매일 창고로 출퇴근한다. 법인 창고에는 각종 농기계와 농사 장비, 재료들이 빼곡히 자리 잡았다. 바쁜 시간을 할애해 올해 농사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게 된 이야기를 나눴다. 김상훈 농부는 매년 5만 평 농사를 짓는다. 작년에 우도땅콩 신품종 종자 개발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우도올레-1' 땅콩 5천 평, 녹두 4만 평, 차조 4천 평을 경작하고 있다. 이 작물들을 수확하고 나면 보리와 식용 유채, 밀 등을 파종할 계획이다.

농사를 짓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은 텐데

기후 변화로 요즘 날씨를 예측하기가 힘이 듭니다. 한 달 내내 비만 온다거나 가뭄이 든다거나 수확기엔 연일 장마처럼 비만 내린다거나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충해 방제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땅콩은 흰비단병이 발병하면 시들어 죽게 되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처방전이 없어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사람 소유의 농지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에 암반을 제거하거나 배수로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이런 문제들을 원활하게 할 수 없고, 지속적인 농지 확보 또한 불투명한 점이 많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 이유와 목적은

소규모 영농이 아닌 대규모 기계화 영농을 위해서

는 법인 설립이 꼭 필요합니다. 단순히 생산하고 판매에 머물렀던 1차산업의 농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농촌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특산물 제조가공 및 유통·판매·문화·체험·관광을 서비스 등과 연계하는 6차산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법인은 그 길로 가는 가교역할을 할 것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정부 보조사업을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짓는 농사 규모에 맞게 시설이나 장비 등의 지원, 농산물 가공이나 판매·유통 및 브랜드를 육성하는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혜택이나 세금 신고 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한시적인 인력을 지원받거나 외국인 인력을 상시로 고용할 수 있는 지원 정책 등으로 부부 노동력만으로도 지원 인력을 잘 활용하면 인건비를 절감시키는 농사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위탁 영농이 무엇인지

위탁 영농은 말 그대로 농사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경작에서 수확까지 농사 인력 수급 문제, 생산, 유통, 가공, 판매와 더불어 농기계 및 농업 시설 등 판매, 수리, 임대·임차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

우선 지역 농업인들과 소통의 장을 열고 싶습니다. 우도의 농업 현실과 농사의 다양한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의 농사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농업 전반에 대한 새로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의 장도 마련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땅콩에 집중된 여름 농사를 새롭게 대체할 작목 개발 연구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식용 유채를 재배하여 봄에 유채꽃을 만끽할 수 있는 경관작물 기능과 고소한 맛이 일품인 유채 기름을 생산해서 일거양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보리에 편중된 겨울 농사를 밀 농사로 전환하여 생산을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앞서 달리는 선수는 늘 외로움을 뒤로한 채 자신의 의지와 경기력을 믿고 앞으로 달린다. 농업 인생의 종착 지점까지 지치지 않고 독심 있게 계획한 테로 펼쳐고 싶은 꿈을 마음껏 풀어내며 완주하길 응원한다.

• 김영진 발행인



녹두밭에 기계를 이용하여 살충제와 제초제를 혼합하여 살포하는 모습

●●● 독자기고

우도 삼촌들과 함께하는 인지 놀이와 그림책 놀이

• 박성희(중앙동)

한 분, 한 분 '도서관' 같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살아 있는 삶의 경험담을 듣는 시간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경로당으로 놀러 오세요.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를 입 밖으로 크게 말하며 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 우도 삼촌들과 함께하는 인지 놀이와 그림책 놀이를 소개합니다.

우도 살이 4년 차가 되어가면서 주변 어르신들의 일상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흙으로 검게 물든 손가락과 손톱 사이로 지금까지의 삶이 보였고, 바다로 발으로 향하는 발걸음에서 앞으로 남은 삶의 모습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에 감히 작게나마 어린 시절의 추억을 함께 떠올리고 그동안 살아온 삶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깨내어 볼 수 있는 시간!'



5월부터 용기를 내어 시작한 우도 삼촌들과 함께하는 인지 놀이와 그림책 읽기! 일주일에 한 번씩 우도에 있는 경로당 3곳을 각각 방문해서 노래도 하고, 체조도 하고, 그림책도 함께 읽고, 이야기도 하는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시고, 마음을 열지 않으셨던 삼촌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시고, 얼굴 가득 웃음을 품으시는 모습을 보며 함께 웃고 노



래하게 됩니다.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의 연세가 80~95세 정도로 고령의 어르신들이 어린아이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시며, 함께 한 동작으로 체조를 하고, 그림책의 그림과 이야기를 듣고, 본인 삶의 경험과 지혜를 입 밖으로 내어 이야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 독자기고

우도면 어르신 고시(물) 나들이

• 고지녕(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우도센터)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에서 우도센터를 개소한 지 3년이 되었다. 그간 어르신들과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낀 공통점은 어르신들이 우도 밖으로는 잘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그런지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다. 젊었을 적에는 농사하랴, 애 돌보랴, 물질하랴,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다. 이제 몸이 불편해서 함께 갈 가족은 없고, 어디를 어떻게 가야할지 모르고, 이런저런 이유로 바깥나들이를 가지 못하고 지내는 것 같았다.

이에 복지관에서는 우도면 어르신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물 나들이를 계획했다. 막상 시작하고 나니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야 어르신들이 하나라도 더 즐길 수 있을까,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다. 그래도 이왕 나가는 길에 제대로 놀다 오는 알찬 일정을 짰다.

첫 번째 코스는 조천읍에 위치한 에코랜드. 입장하고 나서 우리를 처음 맞아준 것은 기차였다. "한평생 살며 기차는 처음 타봤쎄. 막 덜덜 떨려신게~!"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탑승한 기차가 도착한 곳은 넓은 호수가 있고, 아름답게 만개한 꽃들이 어르신들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호수가에 다리도 거닐고 꽃구경도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어르신들 일가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두 번째 코스는 복지관에서 공연 관람. 우도면 어르신들이 물 나들이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구좌읍 와들랑합창단에서 어르신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 주고 싶다고 해서 공연을 마련했다. 재밌고 흥겨운 공연을 함께 하며 손이 아프도록 열심히 손뼉치던 어르신 모습이 아직도 아른거린다. 멋진 무대를 보여주신 와들랑합창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세 번째 코스는 성산읍에 위치한 아쿠아플라넷. 계획을 짜면서도 평소 물질에 익숙한 어르신들에게 아쿠아리움은 식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 하지만 웬걸? 수족관을 보자마자 함께 자리한 봉사자 선생님들을 붙잡고 들뜬 목소리로 물고기에 대한 설명을 술술 해내는 어르신의 모습은 정말로 최고였다. 펭귄도 보고, 상어와 사진도 찍고, 멋진 아쿠아쇼를 끝으로 물 나들이가 마무리되었다.

나들이가 끝나고 돌아갈 시간 성산항에서 우도 도항선을 기다리며 행복해하던 어르신들의 모습에 많은 에너지를 받게 된 소중한 순간이었다. 다음에도 좋은 곳에 구경 가지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우도로 향하는 막배에 몸을 실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차도 타보고, 맛있는 밥도 먹고, 재밌는 공연까지 진짜 최고야. 오늘 하루 정말로 행복했어.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늙은이를 데리고 다니느라 진짜 고생했어. 다음에 우도 오면 찾아와. 내가 꼭 맛있는 거 해줄게."



자연사가 살아 숨쉬는 세계지질공원 우도-1

• (故)송시태(이학박사, 꽃자왈사람들 초대상임회장 역임)

우도는 제주도의 62개 부속도서 중 제일 큰 섬으로 제주도 동쪽 끝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에 속한다. 우도면은 해안선 길이 약 17km, 동서길이 약 2.5km, 남북 길이 3.8km이며, 면적은 약 6.181㎢로서 제주시에 속하는 4읍, 3면 중에서 가장 작다. 우도면은 4개 리(서광리, 천진리, 조일리, 오봉리)로 구성되어 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명소 '우도'

우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는 2004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우도 홍조단괴 해변'과 '소머리오름'으로 자연유산중의 지질유산이다. 지질유산이란 자연유산 중에서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지질학적으로 가치 있는 유산을 말한다. 이 중에는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질 유산도 있지만 순수하게 지질학적으로만 중요한 유산도 포함된다. 생물자원과는 달리 지질유산은 재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훼손될 경우, 원래의 형상대로 복원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가 물려받은 지질유산을 소중하게 느끼고 지켜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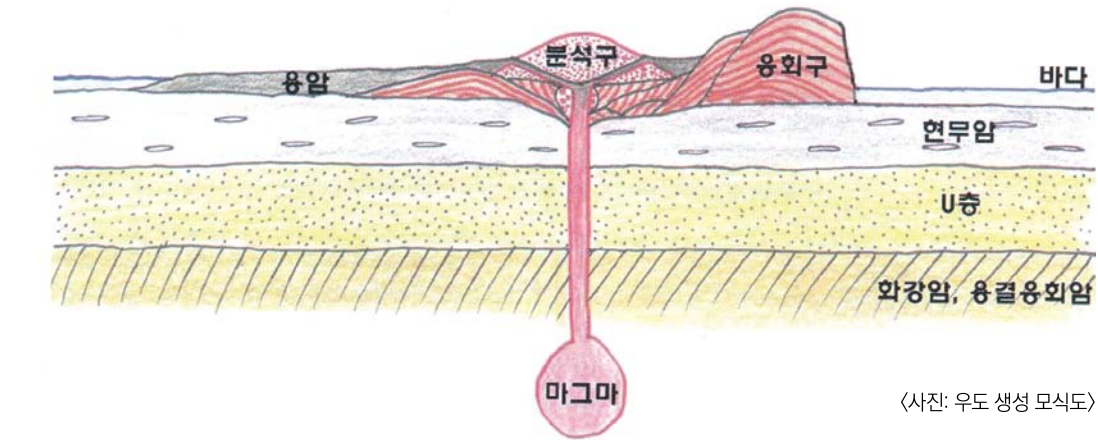
우도는 2014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세계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장소로서 적당한 크기와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자연·인문·사회·역사·문화·전통 등이 결합되어 있으며 지역주민의 경제적 이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공원이다. 진정한 의미의 지질공원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고장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고, rm 가치를 스스로 활용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이다.

우도가 세계지질공원 명소로 지정된 이유는 무엇이며, 우도의 보물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들 보물을 보존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도의 지형과 지질을 비롯한 우도의 탄생역사와 지질유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도의 지사와 경관

우도소머리오름은 제주도가 만들어진 시기인 신생대 제4기 플라이스토세에 단성화산인 오름과는 달리 해수면이 지금과 비슷한 시기인 11만 4천년 전에 현무암질 마그마가 얇은 바닷속에서 분출하여 만들어졌다.

마그마는 얇은 수심의 바닷물과 섞여서 급히 냉각되고 물이 가열되어 끓으면서 격렬한 폭발을 일으키는 켄트형 분출에 의해 유리질 화산재와 화산력은 수증기와 함께 분수처럼 수백 m 높이로 솟구치



〈사진: 우도 생성 모식도〉

며 분출했고, 분화구 둘레에 한 겹씩 퇴적되어 쌓이면서 황갈색, 짙은 회색의 응회암으로 이루어진 뚜렷한 층리를 가진 지층을 만들었다. 우도소머리오름응회구는 만들어진 직후 해수면에서 파도에 의한 풍화·침식작용을 받아 원래의 지형을 추축할 수 있을 정도의 화산체만 남기면서 파식절벽을 만들었다.

우도소머리오름응회구가 만들어 지면서 화도에 화산재와 화산력으로 채워져 바닷물이 분화구내로 유입되지 않자 뒤 이어 화도를 따라 올라 온 마그마는 바닷물과 결합하지 못하고 마치 용암을 분수와 같이 뿜어내는 스트롬볼리형 분출(strombolian eruption)을 하였다. 이때 형성된 스크리아들이 쌓여 만들어진 둥근 형태의 분석구(scoria cone)는 소머리오름응회구 분화구 내에 자리잡고 있다. 소머리오름은 켄트형 분출에 의한 응회구와 스트롬볼리형 분출에 의한 분석구가 만들어진 직후에 폭발력이 줄어들자 분출된 용암은 우도소머리오름응회구의 북서쪽으로 흘러내리며 응회구를 말발굽형태의 분화구로 벌려 놓으며 우도에 대구모의 용암순상지(lava shield)를 만들었다.

우도는 바다에서 섬으로 태어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빙하기가 도래하면서 해수면이 하강하자 섬이 아닌 제주 본도와 연결된 육지의 오름으로 지나간 세월을 보내면서 극심한 환경의 변화를 겪어왔다. 즉, 지금으로부터 18,000년 전은 최종 빙하기였으며, 이 시기는 현재보다 해수면이 약 130m 정도 낮았다. 이 시기에는 수심이 약 120m로 낮았던 황해와 남해 대부분은 육지였다. 바다에서 태어난 우도는 대부분 육지에서 생활을 하다 해수면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현재의 해수면과 같은 7천년 전부터 다시 자

신이 태어난 고향 바다로 되돌아가 섬이 된 것이다.

우도소머리오름응회구는 마지막 빙하기에 육상환경에서 풍화침식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생성초기에 풍화·침식되었을 것이다. 습기를 머금고 있던 응회암들이 채 굳어지기 이전에 쉽게 파도에 의해 침식되었을 것이다. 물론 빙하기가 지나면서 급격한 해수면 상승으로 다시 바닷물에 잠긴 이후 지금까지 해양환경에서 파도에 의한 풍화침식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파식절벽과 해식동굴이 잘 나타나 있다.

우도 내에는 다양한 해안지형이 분포한다. 켄트형 분출에 의해 만들어진 응회구(tuff cone)풍화·침식되어 퇴적된 검은 모래의 검멀레 해변, 그리고 소머리오름이 만들어지는 최후기에 소머리오름응회구의 분화구에 갇혀있던 현무암과 주변의 현무암이 풍화·침식되어 커다란 역으로 모여들어 툰간이 해변을 만들었다. 마지막 최대 빙하기 이후에 해수면이 현재와 같이 상승한 7천년 전부터 우도 주변의 천해 환경에서는 많은 탄산염 퇴적물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우도 수로에 서식하는 홍조류는 홍조단괴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만들어진 홍조단괴는 태풍이나 폭풍에 의해 해안가로 운반되어 쌓인 홍조단괴해빈을 만들었다. 우도의 얇은 바닷가에 살다 생명을 다한 해양생물의 골격인 탄산칼슘 성분들로 이루어진 하얀 모래들이 하고수동해안가에 퇴적되어 하고수동 해변을 만들었다. 해변 퇴적물이 바람에 의해 육지로 운반되어 탄산염 퇴적물로 이루어진 사구층을 만들었다.

응회구의 화산쇄설물로 이루어진 퇴적층을 따라 발달한 해안 절벽에는 파도의 침식에 의해 형성된 4개의 해식동굴이 분포하고 있다.

*이 글은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제주유네스코 학교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 제작된 <유네스코 제주 매거진 THINKERS>에 수록된 (故)송시태 박사의 기고글입니다. 송시태 박사는 교육자이고 지질학자이자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며 제주 꽃자왈의 가치를 알리고 보전하는 일을 해 온 꽃자왈 지킴이입니다. 우도마을신문 달그리안은 우도의 지질에 대한 그의 글을 지면에 싣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고인이 되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유가족에 허락을 구하고 나누어 연재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우도 해녀들이 걱정된다.

• 박인서 학생기자 (우도중1)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회를 먹으러 갔었다.
근데 아빠가 “이제 이 회도 못 먹겠구나”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아빠께 왜 회를 못 먹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빠는 나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알려주셨다. 나는 그 말을 듣자 바로 우도가 걱정되었다. 우도에는 아직 많은 해녀분들이 있다. 하지만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해녀들은 직업을 잃을 것이다. 그럼 해녀들은 다른 일을 구해야 한다. 구한다 해도 사람들이 바다를 멀리할 것이고 점점 우도에 관광객들도 사라져 우도는 이름 모를 섬으로 변해버리고 우도 주민들도 다 우도를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그걸 너무 두려웠다. 사람들은 당연히 앞으로 나가 항의하는 중이다. 이 항의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본지 17호(봄)의 8면 <우도사랑학생 사진전>기고글 중 박성중(우도중 교사)를 박성경(우도중 교사)로 바로잡습니다.

라임이의 우당탕탕 학교 생활 제2화

• 김령경 학생기자(우도중3)



●●● 독자기고

아름다운 동행

우도작은도서관 그림자 연극 참가기

• 김성훈(제주시)

한가한 주말이 갑자기 바빠지고, 복잡한 주말이 되어버렸다. 우도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림자 연극에 참여하게 되면서 부터이다. 자의반, 타의반 참여하게 되었지만 어찌보면 아이들과 아름다운 동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이다.

"라파엘로처럼 그리는 데는 4년 걸렸지만, 아이들처럼 그리는 데는 평생을 그려야 했다." 라는 파블로 피카소의 말이 회자되며 복잡함, 군더더기 다 빼고 핵심만 보이는 그들만의 창조정신세계를 엿보고 싶어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수도 있겠다.

총 8회,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하면 연습은 시작된다. 과연 문화적 생태가 전무한 환경에서 공연이 이루어 질까 의아심을 가지고 말이다. 아이들에게 직접 캐릭터를 그리게 하고, 스스로 배역을 정하고 자율성을 통한 소통, 공감 그리고 배려, 자연스런 자극을 주어 아이들을 움직이게 하고 참여하게 하는 작가 연출자의 변환적 리더십이 돋보였다. 이게 우도형 자립정신의 근간이 아닐까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아이들은 흥분했고, 선생님들은 존경스러웠다.

이 아름다운 동행은 계속 진행돼야 하고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다시 돌아왔을 때 순환적 우도문화의 자립 생태계의 초석이 되고 밑거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참 아름다운 동행이다.



우도지역아동센터의 여름방학은 복적복적!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진행 된 (7월 16일부터 8월 16일) 즐겁고 열정적이었던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 이정희 우도지역아동센터장

제주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연계프로그램

♪ 나만의 캐릭터로 이모티콘만들기



♪ 분장사의 하루



♪ 상상이 반짝이는 애니메이션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연계프로그램

♪ 상상놀이터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계프로그램

♪ 요리로 만나는 베이커스 썩썩캠프



녹색자금 연계프로그램

♪ 오른 만큼 성장하는 아이



●●● 우도야! 고치글라 함께 걷는 우도길

검은 모래 찢질, 옛날 할망들은 약이 그거라

우도 검멀레 해변 맨발 걷기



“모래가 끄서 가불지 않아서 검은 모래가 많이 있어. 옷터레 모래가 막 쌓여 불민, 그뻔 약이 없을 때 난, 외할머니가 모래구질을 했어. 아침엔 동쪽으로 그늘 되난 동쪽에서 찢질하고, 오후 되면 저 멀리 검멀레 콧구멍 쪽으로 가서 모래찢질해나서. 모살 팡 몸을 묻어두고, 놀고 했어.”

어머니의 ‘검멀레’ 가는 길

“영일동 옷둥네 옥금이네 집 옆으로 좁은 길이 있어. 지금은 찾길이 되어 넓어졌지만, 그 길을 걸어 나가면 풀밭 길이 나와. 경행 검멀레 가나서. 옛날엔 농약을 하여 치지 않을 때라, 그 길에 뱀이 많았어.” 영일동이 친정인 김순홍(비양동/80세) 어머니의 어릴 적 검멀레 가는 길을 따라 걷는다.

황금빛 태양이 바다에서 솟아나는 아침.

영일길 116. 파란색 지붕 슬래브집 옆으로 난 시멘트길에 들었다. 너런지 바닷에서 아침 해가 떠오른다. 검은 현무암 발담에 황금색 물이 스며든다. 땅콩밭에도 황금 햇살이 내려앉는다. 한때, 육천 평 농사를 책임졌던 친구 승규네 쇠막은 빛바랜 회색 지붕을 유지한 채 밭 한쪽에 덩그러니 남았다. 병풍처럼 둘러싸인 우도봉 망동산 소낭숲에도 황금빛 태양이 비춘다.

우도 ‘검멀레’ 해변

“검멀레 잔디밭 애염으로 솔솔솔 두 밭 디로 내려가는 길이 이서 신다. 지금은 모래가 어서집만, 싹 끄서 가베서.” 검멀레 입구 잔디밭에서 검은 모래언덕으

로 내려가는 비포장길은 사라진 지 오래다. 잘 정비된 현무암 회색 계단을 조심조심 밟으며 아래로 내려가면 검멀레 해변에 도착한다. 신발을 벗고 모래 속에 발바닥을 파묻는다. 지금부터 맨발 걷기가 시작된다.

검멀레에서 일출

파도 소리, 새소리, 바람 소리가 아침을 맞는다. 하얀 파도에 검은 모래가 실려 왔다 다시 실려 간다. 바람이 깊은 바닷속 검은 모래를 땅으로 계속해서 밀어 올린다. 검은 콧구멍 동굴 입구까지 걷기를 반복한다. 그러다 보면 나를 단단하게 떠받치는 있는 검은 모래의 든든함을 알 수 있다. 그 힘은 발바닥에서 몸의 심장을 지나 머리끝까지 전해진다.

어싱(Earthing)

맨발로 땅을 걷고 원래 인간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지구/흙과의 연결 또는 ‘접지하기’라고도 불린다. 접지를 통해 땅의 기운과 사람의 기운이 교류한다. 바닷물은 접지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어싱(Earthing)은 편리함에 대한 역습

그동안 우리는 편리를 쫓는 바람에 대지와와의 접촉을 잃어버렸다. 맨발로 걷는 동안 은근히 몸에서 땀이 흐른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몸 안의 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발바닥에 전해지는 자극은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한다. 대지와와의 접촉으로 몸의 균형과 안정을 찾는다.

내친김에 콧구멍 동굴로 간다

“콧구녕 건너 가민 또 콧구녕이 이서. 나왕 또 건너가민 머흠팍이 나와. 저 짝. 민짜한 진비령에 가서, 군 벗이영, *오팔 트고, 김 민짜하게 나민 풀치 아상강 삭 삭 부비며, 해 올라오는데 아장 해당 먹어서.” 검은 코꼬망을 지나 붉은 코꼬망으로 간다. 동굴 입구에 금빛 햇살이 따라 들어온다. 동굴 안에 가득 찬 파도소리, 새소리, 물소리는 우도자연! 본연의 소리다. 자연의 소리는 언제 들어도 질리는 법이 없다. 답답했던 귀가 트이고 맑아진다.

‘우도자연이 약이라!’

콧구멍동굴을 나오면 커다란 바위에 바다 청소부 갯강구가 태양을 맞는다. 발 하나 바위에 살짝 얹으니 검은 모래 위로 갯강구가 떼춤을 춘다. 우도 검멀레 해변은 외할머니부터 어머니 그리고 나에게로 대를 이어 오는 동안, 변함없는 풍경을 유지한다. 검멀레 모래찢질이 오래전 우도 할망을 살게 하는 약이라면, 검멀레 맨발 걷기는 단순히 치유와 건강을 넘어 나와 우도, 그리고 사람을 연결하는 힘이다.

‘우도 할망에겐 우도 자연이 약이라!’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다가와 모래에 콧콧 박힌다.

* 쟁비름(배무래기):모양이 납작하다.
* 오팔/배말(삿갓조개):모양이 뾰족하다.

● 강윤희 마을기자

●●● 우도밥상

장군의 손맛, 뜨거운 여름을 휘어잡는 보말무침



바다 고등을 통틀어 제주도에선 보말이라고 한다. 보말 종류에는 고메기, 수두리보말, 먹보말, 돌보말, 매옹이 등이 있다. 갯바위나 돌 틈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보말은 단백질 성분이 풍부하다. 삶아서 갠 알맹이로 국이나 죽을 끓여 먹기도 하지만 무침, 칼국수로도 만들어 먹는다.

보말은 잡는 재미는 물론 까먹는 즐거움도 있다. 짭짤한 해초 내음 뒤 달달하게 끌려오는 쓴맛은 담백하면서도 감칠맛이 돈다.

보말은 아이들에겐 영양간식, 아픈 사람에겐 보양식, 엄마에겐 국이나 무침으로 한끼 푹딱 해결할 수 있는 고마운 식재료다. 옛날에야 바닷가에만 내려가면 흔하게 따올 수 있었지만, 지금은 보말 값이 금값이라 귀한 대접을 받는다.

86세 김춘산 삼촌, 지금은 몸이 불편해 걷기조차 힘들지만, 한뼉 기골이 장대한 남자만큼 일해냈다. 그런 탓에 사람들은 삼촌을 ‘장군’이라 부른다.

삼촌은 바닷밭에선 깊은 바닷속을 숨빌 수 있는 뗏안 되는 해녀로 꼽혔고, 땅밭에선 경운기를 직접 몰아가며 몇천 평 농사를 억척스럽게 짓던 농부였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여섯 남매를 키우려니 역적을 떨치 않으면 안 되었고 강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무친 것 처음 먹어 보지, 간장에 무친 것보다 이게 맛 좋나, 먹어 보라, 얼마나 맛 좋으나”



초고추장 양념에 버무려진 보말 무침은 더위에 지쳐 집 나간 여름 입맛이 돌아오는 맛이다. 시원한 오이와 달달한 양파, 탱탱한 보말의 식감이 잘 어우러져 조화롭다. 헛바늘 침샘 폭발하는 새콤달콤 장군의 손맛이 뜨거운 여름을 휘어잡는다.

삼촌은 무수한 파도를 맞으면서도 그 자리에 끄떡없이 버티고 서있는 바닷돌 같다. 바다의 장군 바닷돌, 바닷돌을 닮은 김춘산 삼촌의 바다에 푸른 평화가 잔잔히 파도치길 바라본다.

김춘산 삼촌이 일러준 보말무침 만드는 방법



1. 바닷돌에 다닥다닥 붙은 보말을 떼다.
2. 잘 씻어 삶는다. 이때 약한 불에서 서서히 삶아 보말이 천천히 익게 해야 동까지 쉽게 갈 수 있다.
3. 갠 보말에 붙은 모래나 해초 같은 이물질은 채반에 담아 씻어준다. 이때 행구듯 빠르게 씻어야 감칠맛이 빠지지 않는다.
4. 깨끗하게 준비한 보말에 썰어둔 양파, 오이를 섞어 만들어둔 초고추장과 잘 버무려 준다.
*초고추장 양념 · 고추장, 간마늘, 설탕, 식초, 사이다 조금, 참기름, 깨소금, 미원 약간 (삼촌들의 음식에는 매번 미원과 다시다가 등장한다. 그들의 조미료에 대한 믿음에는 한 치 물러섬이 없다. 사이다를 넣어주는 이유는 톡 쏘는 단맛 첨가뿐만 아니라 붉기 조절을 위해서다.)
5. 새콤달콤 무쳐낸 보말은 밥 위에 얹어 비벼 먹어도 맛있다.

● 김애경 마을기자

●●● 놀명배우멍

빛과 소리로 밤바다의 고깃배를 인도하는 등대처럼...

우도사랑 합창단을 찾아서



고온 화음으로 합창 연습이 한창인 여기는 우도면 생활문화센터. 매주 수요일 저녁 일곱 시면 어김없이 모여 땀연습하는 우도사랑 합창단의 열기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십여 명이 동시에 입을 동그랗게 오므리고 최대한 뱃심을 끌어올려 목청껏 노래한다. 강약을 조절하며 내는 화음은 부드러운 듯 강한 지휘자의 손동작과 피아노 반주에 날개를 달고 생활문화센터 강당을 오르내리며 곡예를 탄다.

‘우리는 제주도의 가이없는 해녀를 비참한 살림살이 세상이 알아 추운 날 더운 날 비가 오는 날에도 저 바다물결 위에 시달리는 몸~~~’

‘해녀의 노래’가 시작되자 단원들은 숙연해진다. 노래 구절마다 거친 파도와 싸우며 ‘온 가족 생명줄을 등에다 지고’ 살아왔을 우리네 어머니와 누이들, 오늘도 물결에서 돌아와 연습하러 왔을 단원 자신들의 노래를 열창하며 울고 웃는 모습에 가슴 벅차다.

“우도사랑 합창단은 2022년 9월 28일 결성되었다. 90년대 후반 부녀회 합창단 활동이 활발했다는데, 옛 전통도 살리고 우도 사람들이 함께하는 합창단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만들게 되었다. 현재 15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참여하도록 열려 놓고 있다.”(단장 고영희)

합창단 단원이 된 계기가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이 경철 지휘자: 우도에 쉬러 들어왔다가 우연한 기회에 합창단을 맡게 되었는데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에 가르치는 보람을 느낍니다.

김 민영 반주자: 매주 우도 들어오는 일이 힘들었지만, 단원들 실력이 점점 느는 것이 보여 진심으로 열심히 하

고 있습니다.

김 운자: 잘할 수 있을까 의아했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황 애숙: 삶의 활력소인 노래로 가까워지고 싶어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우 순화: 세계로 뻗어나가는 합창단이 되는 꿈이 있어요. 박 성희: 빛으로 소리로 인도하는 등대처럼, 각자는 별거 없지만 함께할 때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도사랑 합창단은 창단 이후 우도 초, 중학교 달그리안 책 축제를 시작으로 경로잔치, 소라축제 등 우도의 여러 행사에 참여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제주 해녀 항일 90주년을 맞아 강관순애국지사의 ‘해녀의 노래비’ 제막식 현장에서 부른 ‘해녀의 노래’는 합창단이나 우도 사람들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앞으로 더욱 빛날 합창단의 건승을 빈다.

● 이승희 마을기자

●●● 독자기고

당신을 해방시키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모두의 해방을 위해

●이사랑(서천전동)



●조수용, <상처 난 거도 버리지 마라>, 종이 위에 채색, 2022

우도의 유일한 서점인 밤수지맨드라미의 올 해 첫" 삼야책방x 32th 책 해는 밤"이 지난8월 25일에 열렸다.

작은 섬의 특성상 저녁에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 지난 해부터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기회가 생긴 것이다.

이번 책 해는 밤에는 제주 선홍의 그림선생 최소연 작가와 함께 그의 책"할머니의 그림수업"에 대한 북토크가 준비 되어있었다.

호미 대신 붓을 든 제주 선홍의 할망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평균87세의 할망들이 서울에서 온 그림선생 최소연 작가님을 만나 평생 생각지도 못했던 그림을 그리게 되며 누구에게도 말 하지 못했던, 마음 속에 있던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들은 난생 처음 해방감을 느끼셨다고 한다.

작가는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할망들을 보며 사실 스스로 해방된 것은 본인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이 부분이 나의 마음을 크게 울렸다.

작가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된 걸까?

이에 대한 궁금증은 북토크가 끝난 후 주어진 질의시간을 통해 해소되었다.

작가에게 할망들과의 소통과 그림수업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신다.

그냥 집에 편하게 누워 아무것도 안하고 싶까 하다 가도 할망들이 생각나 몸을 일으켜 "삼춘~" 하고 마당으로 찾아가면 할망들은 언제나 반갑게 작가님을 맞아 주셨고, 그렇게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림을 그리고, 그것들을 기록하다 보면

"아, 오늘도 나오길 잘했다."

"이거 하길 정말 잘했다. 오늘 하루는 이걸로 족하다."하는 만족감과 해방감을 느끼신다고 한다.

할망들께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해방이고

그림선생인 최소연 작가에게 할망들과 그림을 그리며 웃고 우는 게 해방인 셈이다.

이 대답을 들으며 나 스스로에게 질문이 생겼다. 나를 해방시키는 건 과연 무엇일까?

누군가에게 해방은 고된 하루를 마친 후 먹는 맛있는 저녁이나 술 한잔이 될 수도 있고, 바쁜 일들을 끝마쳐 놓고 떠나는 휴가일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좋아하는 책을 읽는 시간 또는 이렇게 북토크에 참여해 스스로 사유하며 깨달음을 얻는 순간일 수도 있다.

혹시 또 아냐? 할망들처럼 그림의 세계로 빠질 수도 있지!

사실 우리 모두는 자기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하며 사는 것은 아닐까?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을 해방시키는 것은 무엇인가요?

●●● 단신

제주도내 최연소 해녀 우도서 탄생



은혜인씨에게 축하 인사와 함께 해녀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고 우도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 부모님을 따라 섬을 찾았고, 자주 찾던 바다가 좋아져 해녀가 되겠다고 결심한 혜인씨. "바닷소리, 자

연소리 그냥 이런 게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무작정 해녀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러나 해녀로 인정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했다고 한다. "(해녀증을) 받고나서 기분 좋았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이제 또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꾸준히하게 오래 할 생각이예요."

최연소 해녀 탄생 소식에 김양순 우도면 어촌계협의회장은 "우도면에서 최연소 해녀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해녀증을 발급받아서 우리 우도면뿐만 아니라 제주도 해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라며 축하와 기대의 마

음을 밝혔다.

현재 우도면 최고령해녀는 87세로, 관내 현직 해녀는 2021년 201명에서 2023년 182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제주해녀어업>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어업 유산이다. 점점 사라져가는 제주 해녀 문화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선 젊은 세대 유입이 절실하다. 앞으로 해녀에 입문하는 장벽은 낮아지고 젊은 세대들의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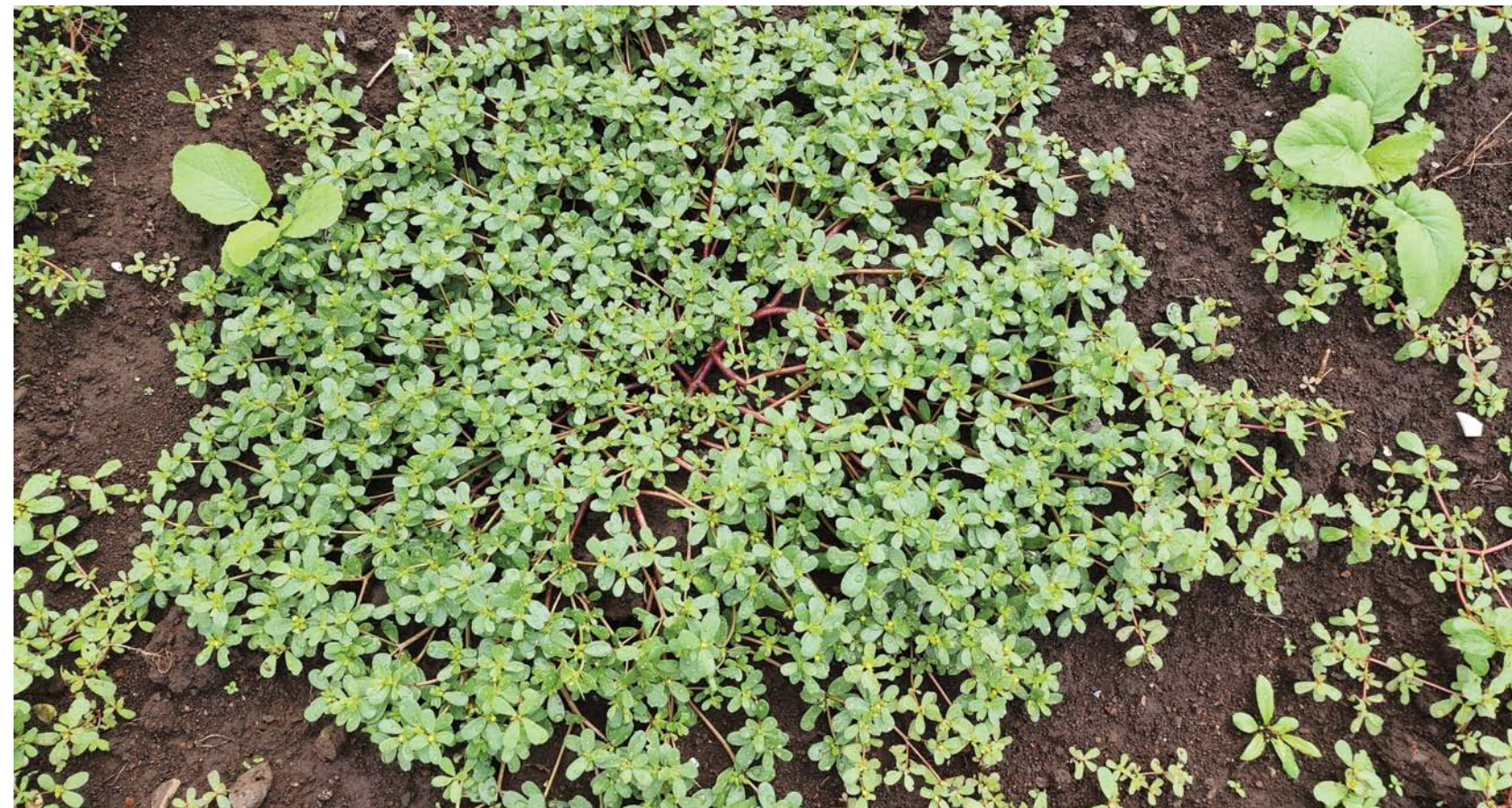
● 편집부

●●● 포토에세이

"나는(해나는) 벤틀피에 타박한 쇠비름을 머리에 모자처럼 올려 댄, 조 밭피 제왕지 겹질 메서."

쇠비름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생명력이 강해 척박한 우도 땅 어디서든 잘 자란다.

모자가 없던 시절, 풀 하나에도 뜨거운 여름을 보내는 우도 어르신들의 지혜가 보인다.



●사진 강윤희/구술 윤복희(동천전동)

2023년 하반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안내

운영기간 2023. 10. 2(월) ~ 12월 (10주)

※ 운영기간은 예산범위내 기간 축소 또는 연장될 수 있음

운영장소 우도면 생활문화센터 등

프로그램 풍물교실 외 8개 강좌 100여명

프로그램명 (강사)	요일	시간	장소	비고
풍물교실 (김옥)	월	18:00-22:00	생활문화센터 1층	주 4시간
성인줄넘기&태권도교실 (김창범)	월, 목	20:00-22:00	우도태권도장	주 4시간
캘리그래피아카데미 (김성근)	화	18:00-22:00	우도북카페	주 4시간
뜨개질교실 (고민영)	화	18:00-22:00	생활문화센터 1층	주 4시간
배드민턴교실 (유진오)	화, 수	19:30-21:30	우도체육관	주 4시간
노래교실 (이경철)	수	18:00-22:00	생활문화센터 1층	주 4시간 (10.18.부터)
한국화&POP글씨 (김정순)	목	18:00-22:00	김진사갤러리	주 4시간
패턴을 이용한 기본 옷 만들기 (김배현)	목	18:00-22:00	생활문화센터 1층	주 4시간

※ 모든 프로그램의 재료비는 수강자 본인 부담
※ 프로그램 운영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 강사 또는 예산 등의 사유로 프로그램 조기 폐강·추가 개설 될 수 있음
※ 문의처 : 주민자치팀 ☎ 728-4322

●●● 제주어 한마디

올리다/요물다

(열매가)달리다 /여물다

춘자: 삼춘, 우영에 호박꽃 하영 퍼수다예, 호박도 하영 올라신게마썸.

(삼춘, 텃밭에 호박꽃 많이 피었네요, 호박도 많이 달렸고요.)

삼춘: 개난개. 꽃이 하영 피어부난 안 올줄 알아신디 하영 올았썸.

(그러게. 꽃이 많이 퍼서 호박이 안 열릴 줄 알았는데 많이 달렸구나.)

춘자: 삼춘, 나도 요문 호박 하나만 줌서, 아방 호박국 끓여 안내게마썸.

(삼춘, 나도 잘 여문 호박 하나 주세요. 아버지께 호박국 끓여 드리게요.)

● 백송미 마을기자

●●● 독자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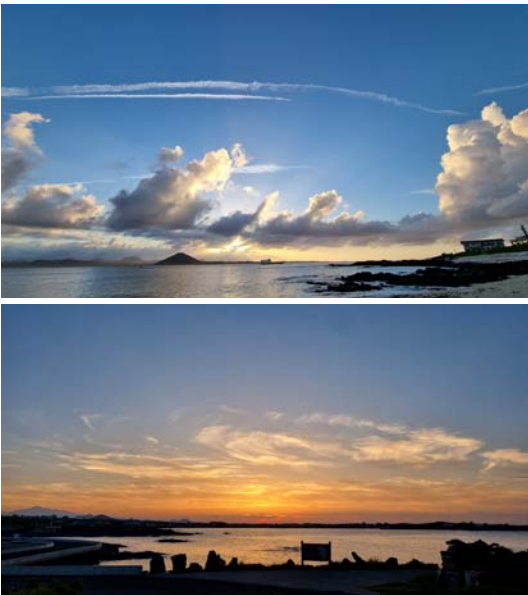
여행 그리고 행복한 우연

• 이은채(경북 포항시)



조용하고 한적한 우도의 저녁에 마음을 빼앗겨 3개월간의 우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와서 종종 했던 생각인데, 인생은 참 이상하게 흐르는 것 같아요. 이 나이에 졸업도 취직도 못하고 제주도에서 몇 개월간 지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예전의 저는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라고 믿었어요. 저에게 일어나는, 혹은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필연이라 여긴 거죠. 제가 계획하고 통제할 일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이왕이면 적당한 타이밍에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완벽한 상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

아요. 저는 그걸 이곳에 와서야 깨달았어요. 세상은 온통 우연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게 계속 이어지다가 인연이 되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우연을 필연이라 믿고 그러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힘을 풀고 가볍게 우연에 기대보자”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뭐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더라고요. 핸드폰 지도 앱의 안내를 따르지 않고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면 우도의 숨겨진 아름다운 골목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무심코 들어간 카페가 내 입맛에 딱 맞는



커피 맛집일 수도 있어요. 사장님의 추천메뉴가 인생 메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손님과 나눈 몇 마디의 대화가 나에게 깊게 남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우연이 인연이 되고, 결국엔 필연이라고 믿을 만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인생은 이상하게 흐르니까요. 모든 분의 여행이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이런 행복한 우연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 독자기고

바다에서 우도는 멀게만 보였다

• 양희범(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천진리 출신)



지금까지 나의 삶은 바다였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바다 위 섬 우도에서 태어나 바다를 보았고 바다고등학교, 바다와 인연이 있어 포항 제1사단 해병 특수수색대에서 군 복무를 했고, 바다를 연구하는 대학, 대학원에서 공부했다. 30년간 평생 직업도 수산직 공무원이었다. 2004년 7월 24일 당시 46세. 마음은 청춘이었다. 오전 9시 40분경 성산포, 속칭 우뚝개에서 입수, 우도 소섬을 향한 바다의 여정은 시작되었다. 해상거리 약 3km, 물안경 하나만을 착용한 채 횡단을 시작했다. 다행히 파도는 높지 않아 수영하는 데는 큰 지장을 주지 않았으나 조류가 무척 심했다. 최대한 물 흐름이 가장 적은 정조 시간을 맞추었으나 일출봉 쪽으로 조류의 흐름이 있어 몸도 같이 흘렀다. 당시 수영횡단 에스코트를 담당한 도 수산정책과에서 같이 근무한 변현철 주무관(현 제주시 농수산국장)이 조류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낚시줄을 드리워 확인했다. 예로부터 성산포-우도 간 해역은 조류가

강하고 일정하지 않아 수영하는 것을 꺼렸고 성공률이 낮은 곳으로 알려졌다. 조류 세기는 명랑해전 승전이 있었던 전남 해남 우수영 울돌목 다음이라고 줄곧 이야기했다. 그런 이유로 당시에 성산포와 우도 해역의 여건을 잘 아는, 최근에 고인이 된 우도해운(주) 대표 임봉순님 등 많은 분께 조언을 받았다. 그러나 막상 입수하니까 바다 여건은 생각했던 거와 달랐다. 우도는 보이지 않았고, 바다 속은 퍼렇게만 보였다. 입수한 지 1시간 30분 소요, 오전 11시 10분께 우도 천진항에 도착했다. 조류 영향으로 실제 수영거리는 4.5km 정도 되었다. 본섬에서는 멀지 않게 보였던 우도가 해협 횡단 과정에서 우도가 그렇게 멀 줄은 미처 몰랐다. 오랜 소문에 의하면 선배인 천진리 동천진동 정균 식님이 해군 UDT 복무시절 횡단했다는 이야기, 오봉리 전홍동 김익환님의 아내 되는 분이 당시 연애 과정에서 애인을 만나러 우도에 갔다가 못 만나서 종달리까지 수영으로 횡단했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공식적인 기록 등 기사 내용은 없다. 2004년에 횡단했으니 내년이면 횡단 20주년이 된다. 횡단 목적이 중요하다. 무엇 때문에 위험하게 수영으로 횡단하였을까? 당시 우도는 2도항선이 진입, 환경의 변화 등 여러 가지로 갈등이 있었다. 고향이면서 공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성산포-우도 간 수영횡단이었다. 어릴 때부터 바다에 익숙했고, 해병대

“소 목동과 들풀이 있던 그 아름답던 우도 풍경이 해안도로가 개통된 후 각종 차량들로 인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사람들의 관심도 덜한 것 같기도 하구요. 단순히 수영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체력 훈련 차원에서 횡단한 것도 아니며 우도 출신으로서 우도를 사랑하는 마음, 더 나아가 우도 주민이 하나 됨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됐어요”라고 이야기했다. 앞으로 이 같은 계획을 또 갖고 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는 “이 지역은 조류가 너무 심해 힘들어서 두 번 다시는 도전할 마음이 안 생긴다”며 양씨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양씨는 “동호회 등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모여 성산-우도 횡단을 이벤트 행사로 개최해봄 직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해병특수수색대, 우도면 공무원 모임, 부서 직원 등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 양씨의 횡단이 성공하길 기원했다. (2004. 7. 26일자 제주일보 기사 발췌)

2023년 섬마을 소식

2023년 4월

4/14~16 우도면연합청년회(회장 정민국) 제12회 우도소라축제 개최
4/16 우도등대(회장 강은주) 우도환경정화 활동 실시
4/20 우도초·중학교(교장 이강식) <2023학년도 우도어울림 한마당 축제> 개최(우도초중 운동장)

2023년 6월

6/1 우도면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위원장 고흥범) 제6기 우도면 주민참여예산지역심의회의(우도면 2층 회의실)
6/3 우도면(면장 김재중)·대한노인회우도면분회(분회장 고재보) 제1회 우도면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개최(우도체육관)
6/6 우도면(면장 김재중)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우도충혼묘지)
6/7 우도라이온스클럽(이임희회장 김병기·취임회장 김상용) 창립 제29주년 기념식 및 제29대~30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탐동 팔레스호텔)
6/8 우도면(면장 김재중) 2023년 우도면 체육회 구성 지역주민 간담회(우도면 2층 회의실)
6/11 우도등대(회장 강은주) 우도해안정화활동 실시(영일동 해안변)
6/16 제주도·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우도 로컬 브랜드 라운드테이블 실시(우도면 2층 회의실)
6/21 제주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 우도올레-1 실증 농가 현장방문(여중섭 농장)
6/22 구좌농업협동조합(조합장 윤민) 2023 보리 수매(비양동 광장)
6/28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지선) 2023 우도지역 프로그램 <우도 복자의 날> 실시(우도센터 및 지역 일대)

2023년 5월

5/8~12 제주도·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마을문화유산 이해 및 확장> 프로그램 실시(우도면 일대 및 우도창작스튜디오)
5/12 제주도(도지사 오영훈)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제1차 도민 경청회 개최(우도면 2층 회의실)
5/31 우도면·우도면주민자치위원회·우도초중학교·우도면자생단체 2040플라스틱제로 우도프로젝트 실현 업무협약 체결(우도면 2층회의실)

2023년 7월

7/7~10 제6호 태풍 <카눈> 직간접 영향권
7/13 제주도(도지사 오영훈) 오영훈 도지사 2023년 우도면 현장방문
7/4~27 우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고성중) 독거어르신 노후전기.배선 교체사업 실시(34가구)
7/17~21 조일리(이장 여승현)·부산미로한의원 봉사단(단장 백광현 원장) 지역민 대상 한방의료봉사실시(조일리복지회관)
7/19 제주시(시장 강병삼) 안우진 부시장 우도면 현장방문
7/30 우도라이온스(회장 김상용)·우도등대(회장 강은주) 합동 우도해안정화활동 실시(하교수동-비양동 해안변)

2023년 8월

8/13 오봉리(이장 김경철) 제1회 2023 섬머페스티벌 개최(하교수동 해수욕장)
제주도·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우도담수화시설 문화재생 파일럿프로 그램 <우달장>개최(구 우도초등학교)
우도등대(회장 강은주) 우도해안정화활동 실시(돌가니 해안변)
8/29 하우목동 해녀회(회장 고운임) 하우목 백중굿 실시(하우목 당)
우도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철수) 위원 및 자생단체 대상 지도자역량강화교육 실시(우도면 2층회의실)

우도마을신문 달그리안의 지면은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수시로 독자 및 주민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지 기사 내용에 대한 반론이나 의견 등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르더라도 독자여러분들의 의견을 보장하여 실어드립니다. 행정정보, 출향면민, 동호회 소식, 경조사 등 공익이나 공공성 정보는 자료를 보내주시면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 **마을기자** 마을 소식을 찾아 기록하고 전달
- **독자참여** 자유주제, 여행기, 사진, 영상, 문학작품 등 기고(A4 1매 이내/글 크기 12point/ 줄 간격 160%)
- **보내실 곳** 메일 udo_dalgrian@naver.com / 우편 제주도 제주시 우도면 하우목길 9-1번지(63365)
- **참여 문의** 010-2696-0441/ 010-4732-0075

제1회 오봉리민 체육대회

일시: 2023년 10월 15일(일)
장소: 우도체육관

우도초(43-54) 동문 체육대회

일시: 2023년 10월 15일(일)
장소: 삼양초등학교 운동장

제2회 우도초총동문·제주우도면민
하마음 체육대회

일시: 2023년 11월 4일(토) 장소: 조천운동장

우도작은도서관에서 영화 보는 날

일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14:00 청소년 영화/19:00 어른 영화)
장소: 우도작은도서관

주민과 독자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우도마을신문은 제주 우도(牛島)의 마을공동체 문화를 계승하고자 합니다. 섬마을의 과거와 현재 이야기를 기록하며 지속가능한 아름다운 우도의 미래를 꿈꿉니다. 우도마을신문은 계간지로서 독자와 후원인의 도움으로 제작되어 지역주민 및 출향 면민회에 무료 발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후원을 기다립니다.

※제주 인터넷언론사인 제주투데이(http://www.ijejutoday.com)를 통해 본지의 창간호부터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도마을신문 활동

- 6/5 사회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이사장 윤혜영) 활동가 간담회(우영팻 갤러리)
- 6/7 우도라이온스(회장 김병기) <우도마을신문 2023 우도 섬마을 생활사 아카이브 사업> 지원 대상 선정
- 7/8~9 주민과 함께 만드는 마을신문 <나도 마을기자다> 마을미디어 교육 실시(우도북카페)
- 8/16~20 202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 <마을기자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실시(우영팻 갤러리)
- 8/28~29 주민참여교육 우도문화유산 찾아가기 <하우목동 백중굿> 강좌 및 답사 실시(우도생활문화센터 및 하우목동 본향당)



우도라이온스 봉사상 지원대상 선정



<나도 마을기자다> 마을미디어 교육



마을기자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우도문화유산 찾아가기> 주민참여교육

인사 / 축하 / 알림

- 김상용(하우목동장) 우도라이온스클럽 제30대 회장 취임
- 김광민(한국자유총연맹 도지사 부회장/ 영일동) 세계자유민주연맹 (총재 Eng-chi Yao) 봉사장 수상
- 우도라이온스클럽(회장 김병기) 우도동대(회장 강은주) 우도환경정화기금(봉사금) 및 우도마을신문(대표 김영진) 수여
- 천진리(이장 고광환) 제주동부소방서(서장 황승철) 지정 <화재없는 안전마을> 선정
- 김지환(영일동 김동진·공해경의 자) 서울대 공학박사(협동과정 조경학 및 융합전공 스마트시티 글로벌 융합) 학위 취득
- 공문연 제주관광대 교수(비양동 공광수·김영순의 차녀) 고려대학교 간호학박사 학위 취득
- 고영민(하우목동 고광필의 자) 광주과학기술원 공학박사 학위 취득
- 고성종(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주흥동) 제주도지사 표창 수상
- 정순덕(서광리어촌계/상우목동) 제16회 제주해녀축제 제주도지사 유공자 표창 수상
- 윤원유(김춘산의 자/동천진동) 구좌농업협동조합 우도지점장 취임
- 강대웅(강영수·김수자의 자/비양동) 해양수산부 사무관 승진
- 김예진(김경철·윤순열의 자/삼양동) 제32회 경찰청장직 전국사격대회 입상

우도 주요 생활 정보

- 우도면사무소 민원실 064-728-1527
- 천진리사무소 064-783-0569
- 서광리사무소 064-783-0044
- 오봉리사무소 064-783-0568
- 조일리사무소 064-783-0570
- 우도초·중학교 행정실 064-786-4500
- 우도파출소 064-783-0112
- 우도보건지소 064-728-1518
- 우도119지역센터 064-782-1119
- 예비군우도면대 064-784-5113
- 제주시수협 우도출장소 064-783-0010
- 구좌농협 우도지점 064-783-0008
- 우도우체국 064-783-0001
- 우도항로표지관리소 064-783-0180
- 우도전력서비스센터 064-783-0308
- 우도경로당 064-783-3088
- 오봉리경로당 064-783-1070
- 조일리경로당 064-783-9970
- 우도지역아동센터 064-782-4090
- 금강사 064-783-0375
- 제주교구 성산포성당 우도공소 064-783-0631
- 우도살롱스튜디오요양시설 064-784-4091
- 우도교회 064-783-0006
- 우도제일교회 064-782-5520
- 우도공업사 064-783-1818
- 우도종합철물건설 064-783-0500
- 우도가스 064-782-6000
- 우리종합가스 064-783-0402
- 우도효도차 탑승 064-784-8281
- 구좌농협우도주유소 064-783-4040
- 구좌농협하나로마트 우도점 064-783-9719
- 그린마트(의약품 취급소) 064-784-2672
- 우도관광 064-782-5080
- 천진리 어촌계 010-3694-0666
- 서광리 어촌계 010-2802-0193
- 오봉리 어촌계 010-8662-0371, 064/783-0371
- 조일리 어촌계 010-3639-0167, 064/783-0167
- 우도작은도서관 010-7551-8251
- 우도어린이집 064-783-2235
- 우도인력사무소 010-6755-8106

후원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8 고영주 고훈일 김병현 (주)대은계전
- 2019 강계원 강무송 강문홍 강세봉 강세정 강승일 강영수 고민구 고봉석 고봉준 고영주 고창운 고희순 김금현 김대환 김법진 김상용 김성진 김안녀 김양순 김영성 김우정 김지영 김진민 김창숙 도은종합건설 마리앤월정 박우철 박지영 서울우도면민회 성정일 송정아 신광현 안비양청년회 양승권 양승호 여찬현 우도기타동아리 우도바라기 우도살레 우도장날 우도초중49-34동창회 우송수 우승완 우승혁 우윤필 윤석만 윤소남 윤영유 윤용 윤원우 윤정용 윤철민 이건우 이명식 이정희 정수진 조은영 채인배 한두영 한승규 현종호
- 2020 강광일 강무송 강병호 강승일 강영수 고덕현 고민구 고봉준 고봉호 고성균 고성환 고영주 고영호 고영희 고응옥 고정길 고희순 고희진 공성신 박민아 구좌농협 김광민 김광석 김도균 김문형 김병기 김병현 김선임 김성진 김수열 김수진 김양언 김우정 김윤홍 김중국 김진민 김진복 김혜숙 로라진주 마리앤월정 문기석 북여내왕돈까스 부태만 송정아 안비양청년회 양계영 양성집 양형철 양희범 여관용 여중섭 여찬현 올레전기차 우광술 우도바라기 우도살레 우도상회 우도초중49-34동창회 우영훈 우월심 윤석만 윤소남 윤영유 윤재관 윤희진 이건우 이장단협의회 전기숙 전승만 정문환 정영철 정현우 (주)심종합건설 한인숙 홍중수 황동철
- 2021 강문수 강승일 강승현 강영수 고덕현 고봉석 고봉준 고영주 고용숙 고홍석 박민아 구좌농협 김설미 김세현 김수진 김영순 김진민 김철봉 김현숙 김형진 박준철 백광현 별초초서승완 성현주식회사 송정아 안비양청년회 양성집 어촌계장단협의회 여상훈 여승현 오윤실 우도태권도장 우도해운(주) 우송완 윤문우 윤소남 윤현정 이순형 이스크라21 이호문 전기숙 정문환 정미라 (주)우로랜드 (주)우림해운 (주)제주착한여행 진순덕 채인배 최성 허주환 황동철
- 2022 강무송 강병호 강승일 강영수 고덕환 고덕현 고민구 고영주 고홍석 박민아 구좌농협 김병기 김설미 김세현 김수진 김양순 김일영 김창범 김대민 김현숙 김희민 문봉순 문호진 방순영 백광현 보요요펜션 부산우도면민회 서울제주도민회 서승완 안비양청년회 안성관 양성집 양형철 여중섭 올레스쿠터 윤원유 이상우 이순형 이안태 이현철 장혜영 전기숙 전승만 정미라 정문환 정수진 한인숙 홍성표 황동철 황승철
- 2023 강봉수 강승일 강영수 고덕현 고봉석 고봉준 고영주 고홍석 고희순 박민아 김병기 김설미 김세현 김안녀 김양순 김용민 김일영 김진복 김창범 김현숙 문봉순 백광현 서승완 양성집 양정식 우도인력사무소 우도3419동창회 윤석만 윤용 윤희진 장혜영 전기숙 홍성표 황승철 고경란 고옥희 구좌농협 김선임 김수진 김신숙 김정훈 문용포 비양동청년회 양희범 우도라이온스클럽 윤문우 윤재관 전승만 정문환 채중익 한인숙 황동철

우도 마을신문

달그리안

발행 우도마을신문(제주바-01039)
발행인 김영진
편집인 강계현, 강윤희, 김애경, 사윤수, 송희정, 이승희
디자인 디자인누리

udo_dalgrian@naver.com
Facebook.com/dalgrian
udo_dalgrian

우도마을버스 운행정보

해안길 순환 버스 및 마을안길 순환버스 노선과 시간표는 계절별, 기상 특보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업체 또는 매표소에 문의, 확인** 바랍니다.

- 우도사랑협동조합(마을버스) 064-782-2626

우도도항선 운행정보

우도도항선(3사) 노선과 시간표는 기상상태, 항구 사정 등으로 시간 및 항구 변경 등이 있으니 **업체 또는 대합실 매표소에 문의, 확인** 바랍니다.

- 천진항대합실 064-783-0448
- 하우목항대합실 064-782-7730
- 성산항대합실 064-782-5671
- 종달항대합실 064-782-7719
- 성산항관광안내센터 064-782-8860

후원 및 구독문의

농협 351-1045-5273-33 우도마을신문
전화 010-4662-0926

우도마을신문 달그리안 모바일 뱅킹으로 정기 후원하기

- 1 주거래은행 앱 열기
- 2 이체/출금 자동이체
- 3 이체신청관리
- 4 자동이체 등록
- 5 달그리안 후원계좌 입력
농협 우도마을신문 351-1045-5273-33
- 6 이체금액/ 이체일 지정
- 7 신청